



현대건설(주)
김중겸 건축사업본부장

“최상의 서비스는 최고의 자산가치를 제공합니다”

국내 주요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프로젝트 매니저, 건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해온 김중겸 전무. 그는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약 11만여 세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안정 및 주택산업의 시공 기술력 향상 등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영원한 '현대맨', 김중겸 건축사업본부장의 건설 외길 30년을 조명해 보았다. 글·박병기 기자 / 사진·성유숙 기자

김중겸 본부장은 업계 최초로 입주고객을 위해 원-스톱 입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주고객서비스 라운지를 운영하여 고객과 업계의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고객만족, 고객감동 경영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현대건설이 자금 유동성 위기 이후 많은 현대맨들이 회사를 떠나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환경 하에서도 건축사업본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연간 평균 수주 4조원, 매출 2조원대를 달성하여 현대건설의 경영정상화 일등공신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정신이 살아 있다면 그야말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은 세상 최고의 자산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과 점점 포인트를 찾아서 진정한 서비스를 실천한다면 가치향상과 품질제고는 보장된다는 논리이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건설기업 현대건설에서 주택 및 건축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중겸 본부장의 평소 소신이자 사업본부의 경영모토이다. 올해로 30년째 76년 현대건설 입사, 2006년 현재 재직 중'으로 깔끔한 이력서를 소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현대 맨이다. 그는 그 동안 해외건설 주요 현장에서 배우

고 익힌 경험과 노하우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77년 이라크에서 혼자 국경을 넘나들며 칠흙 같은 어둠과 싸우며 업무를 보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는 그에게 오늘날 한국건설의 나아갈 길을 물었다.

“개발 선진국의 시스템을 우리 것으로 접목하여 한국건설의 장점을 살리고 예술감각을 제고시켜 건축문화의 가치혁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 중 무려 38개국을 돌며 지구촌의 모든 것을 한국형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만반의 자세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과거 한국 건설 반세기가 있어 21세기 미래가 기대되는 것 아니냐는 그의 저침없는 목소리에서 웬지 자신감이 생기는 듯 하다.

그는 무형의 가치를 특히 강조한다. 기업이건 사람이건 품질 즉,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 체제하에서 고객이 우선이라는 철칙을 준수하고 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갖고 매사에 임하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래서 그는 사업본부의 경영목표를 'Vest Quilty, Vest Service, Vest Value'에 두고 있다. 건축사업본부의 식구만 1200명에 달하고 매출액이 무려 2조1000억 원 규모이니 웬만한

대기업 전체 규모를 능가하는 조직이다.

완벽한 업무스타일과 외모에서 풍기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그는 후배들에게 이것을 강조한다.

“모든 것은 타임(Time)이다. 왜? 언제? 무엇을?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국 건설사업 관리자는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누가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앞서 언급했듯이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여 백년대계의 국토 개발에 책임감과 자긍심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건설의 미래경영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패키지화 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체제 아래에서는 명실상부한 건설경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건설 반세기 성장과정을 지켜 본 그의 이 지적에 찬반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술과 경영은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그이지만 가정애기만 나오면 정말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혼자 두고 해외근무한 것부터 그에게 있어 가정은 그냥 미안할 따름이라고….

다만 “부지런히 앞만 보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봐 준 아내와 자식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 더욱 할 일이 많은 소임을 맡고 있는 것에 무한한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발휘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할 일이 아니겠냐”며 자세를 바로잡는 그에게서 진정 프로페셔널의 냄새가 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그의 건강비결처럼 대한민국의 건설산업도 선진화 전략에 부응하여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실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향후 아파트 부문의 신규브랜드 런칭,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고객 충성 경영 등을 통해 현대건설 제2의 중흥기를 맞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설문화와 후배 건설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무언가 고민 중이라는 김중겸 본부장. 그는 어쩔 수 없는 영원한 건설맨이었다. ■

